

毛澤東 哲學思想(Ⅱ)*

—認識論—

金 昭 中

I. 序 論

II. 實事求是

III. 마르크스主義 實踐觀

IV. 認識의 辯證法的 過程

V. 黨의 群衆路線과 마르크스

主義認識論

VI. 客觀規律과 主觀能動性

VII. 結 論

I. 序 論

認識論(Theory of Knowledge)思想은 毛澤東思想과 哲學思想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中國共產黨과 毛澤東의 世界에 대한 認識과 改造의 장기적인 實踐過程 및 理論 가운데 깊이 관통하고 있다.

認識論은 인류인식의 來源과 인식 발전과정에 관한 철학學說을 말하며, 認識이란 唯物論의 입장에서 볼 때 客觀世界의 人間頭腦로의 反映을 뜻한다.¹⁾

哲學의 基本問題는 思維와 存在의 關係問題이다. 이 問題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두 방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思維와 存在, 精神과 物質, 主觀과 客觀에 있어 어느것이 1次的인가 하는 問題이며; 둘째는 思維와 存在, 精神과 物質, 主觀과 客觀에는 同一性이 있느냐, 즉 인간의 思維는 客觀世界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느냐의 問題이다.²⁾ 이 問題에 대해 마르

* 本論文은 西江大學校「東亞研究」第11輯(1987. 6.)에 실린 “毛澤東哲學思想(Ⅰ)”에 이어진 것임.

1) 「辭海」: 哲學分冊(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0), p. 58.

2) 吳 江, 「認識論十講」(上海: 人民出版社, 1982), pp. 37~38.

크스主義哲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즉 物質이 1次的이고 精神이 2次的이며, 物質이 精神을 결정한다. 그리고 物質과 精神은 同一性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條件下에서 物質과 精神은 상호 依存하고 상호 轉化하며, 世界는 認識될 수 있다고 본다. 레닌은 말하길 思維와 感覺에서 物質로가 唯心主義認識論의 路線이고, 物質에서 感覺과 思維로가 唯物主義認識論의 路線이며, 이것이 바로 認識論에 있어 두가지 基本路線의 對立이라고 했다.³⁾ 유물주의 인식론의 기본원리는 바로 反映論으로서, 物質世界는 인간의 意識 外部에 있는 客觀實在이고 인간의 認識은 物質世界의 映像·反映이며, 世界 및 그 規律은 認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毛澤東도 外界事物의 客觀實在性을 주장하고, 物質에서 感覺과 思維로의 唯物主義認識路線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哲學 이전의 唯物主義는 인간의 社會性과 인간의 歷史發展을 떠나서 관념적으로 認識問題를 관찰함으로써 認識의 社會實踐에 대한 의의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認識過程中에 있어서 實踐의 으뜸가는 지위와 결정적인 작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認識過程의 辯證法을 이해하지 못하고 認識을 단지 일종의 기계적이고 직관적이거나 소극적인 反映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哲學은 物質에서 意識으로의 認識路線의 기초위에서 처음으로 實踐觀點을 認識論에 끌어넣었으며 또한 實踐의 기초위에서 辯證法을 認識論에 응용함으로써 舊唯物主義認識論의 결함을 극복하고 唯心主義認識論과 不可知論을 논박, 辯證唯物主義認識論을 창립했다. 아무튼 마르크스主義認識論은 인간의 認識이 實踐을 통한 客觀世界에 대한 反映임을 주장하고 있다.⁴⁾

그러면 毛澤東은 認識論에 있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마르크스主義認識論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3) 馬全民等編寫, 「哲學名詞解釋」, 上冊(北京:人民出版社, 1980), p. 36; 列寧, “唯物主義和經驗批判主義”, 「列寧選集」, 第2卷(北京:人民出版社, 1972), p. 36.

4) 「辭海」: 哲學分冊, pp. 58~59.

Ⅱ. 實事求是

中國共產黨 第11期 6 中全會(1981. 6. 27)에서 통과된 《建國 이래 黨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는 ‘實事求是’⁵⁾가 毛澤東哲學思想의 核心이요 精髓이며, 또한 전체 毛澤東思想體系의 根本임을 밝히고 있다. 毛澤東은 이 古代成語인 ‘實事求是’에다가 唯物辯證法的인 새로운 해석을 가했다. 즉 “‘實事’는 客觀적으로 존재하는 一切의 事物이고, ‘是’는 客觀事物의 內部聯繫 즉 規律性이며, ‘求’는 우리가 研究하는 것이다.”⁶⁾ 여기에서 ‘實事’를 客觀적으로 존재하는 일체의 사물로 해석했는데 이는 곧 ‘實事’로부터 出發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物質이 一次的이라는 唯物主義觀點을 견지한 것이고, ‘是’는 客觀사물의 내부연계 즉 규율성으로 해석함으로써 客觀적으로 존재하는 일체의 사물은 자신의 固有한 客觀規律이 존재함을 긍정했을뿐만 아니라 客觀사물과 그 규율은 認識될 수 있음을 긍정한 것이 되었다. 또한 世界(客觀事物)와 그 規律은 認識될 수 있다는 것이 確認되어야만 비로소 實踐을 통해 ‘求’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求是’는 客觀적으로 존재하는 일체의 사물(‘實事’)에서 출발해서 실천을 기초로 하는 調查·研究를 통해 ‘規律性’을 ‘求’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思維와 存在, 精神과 物質, 主觀과 客觀의 ‘同一性’ 문제(즉 ‘可知性’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이 ‘規律性’을 인간 행동의 길잡이로 삼아 인간은 능동적으로 世界를 改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世界改造의 ‘規律性’은 오랜 革命實踐을

5) ‘實事求是’는 본래 中國의 古語인데 최초로 《漢書·河間獻王傳》에 보인다. 顏師古는 일찍이 ‘實事求是’에 대해 “務得事實·每求真是也”라고 했는데, 이 뜻은 학문을 연구할 때 충분한 事實에 근거해서 참된 지식을 탐구하는 실제적인 學風을 가리킨다. (李克, 「毛澤東哲學思想研究」(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3), p. 94 참고)

6) 毛澤東, “改造我們的學習”, 「毛澤東選集」(이하 「毛選」으로 약칭)(北京: 人民出版社, 1969), p. 759.

통해 정립된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一般原理의 지도를 받아야만 쉽사리 발견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主義 자체가 世界改造의 가장 보편적인 ‘規律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앞의 《歷史決議》에서 “實事求是는 곧 實際에서 出發하여 理論과 實際를 연계시키는 것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인 原理와 中國革命이라는 具體的인 實踐을 서로 結合시키는 것이다. 毛澤東同志는 종래 中國社會와 中國革命의 實際를 떠나서 마르크스主義를 研究하는 것에 反對했다”⁷⁾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實事求是’를 이해하지 못하면 毛澤東哲學思想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毛澤東思想(政治·經濟·軍事·文藝等의 思想)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 鄧小平도 말하길 “實事求是는 毛主席思想의 出發點이요 根本點이다”⁸⁾라고 한바 있다.

그러면 ‘實事求是’의 內容을 좀더 상세히 분석해 보자.

1. 일체는 實際에서 出發

‘實事求是’는 무엇보다도 먼저 一切는 實際에서 出發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實際’를 논하기 위해 먼저 主觀과 客觀에 대한 毛澤東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毛에 의하면, “우리의 頭腦이외의 一切는 모두 客觀實際의 것이다.”⁹⁾ “오직 우리의 두뇌(사상)만이 연구의 主體다.”¹⁰⁾ 여기서 ‘主觀’은 우리의 思想을 가리키는데¹¹⁾ 이 思想은 毛에 의하면 理論·意見·路線·方針·政策·戰略·戰術·計劃·方案·措置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客觀’은 우리 두뇌이외의 ‘일체의 客觀實際’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實事·實際·實際狀況·客觀實際·客觀事實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7)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香港：三聯書店，1981)，p. 45.

8) 鄧小平, “在全軍政治工作會議上的講話”, 「鄧小平文選」(北京：人民出版社，1983)，p. 109.

9) 毛澤東, “中國革命戰爭的戰略問題”, 「毛選」, 第1卷, p. 166.

10) Ibid.

11) 毛澤東은 “論持久戰”(「毛選」, 第2卷, p. 445)에서 “思想 등등은 主觀的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자연계의 物質的인 現象, 社會의 社會存在·現象·歷史·社會生産力과 生産關係, 社會各階級の 관계 및 그들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인 표현, 敵我力량의 對比, 群衆의 요구와 自覺程度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客觀實際’이다.¹²⁾

毛澤東은 革命的 ‘實際工作’에서 主觀을 客觀에 符合시켜 正確한 路線·方針·政策을 制定해야 하며, 일체를 實際에서 출발함으로써 主觀的인 所望에서 출발하는 것과 本本에서 출발한 ‘本本主義’¹³⁾에 反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일체를 實際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主觀的인 所望(念願)에서 출발하느냐는 實際工作中에서의 唯物主義와 唯心主義를 구분짓는 標準이며, 또한 實際工作 成敗의 關鍵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實際狀況에 비추어 工作의 方針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일체 公산당원이 깊이 지켜야만 할 가장 기본적인 工作方法이었다.

그러면 一切를 實際에서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

첫째, 具體的인 實際狀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各事物은 모두 자신의 特殊한 矛盾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矛盾의 特殊性을 연구하지 않으면 한 事物이 다른 事物과 서로 다른 그 特殊한 本質을 알 길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具體的인 狀況은 具體的으로 分析해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主義의 ‘영혼’이라고 보았다. 具體的인 特殊狀況을 이해하지 못하면 客觀實際에 대해 具體的인 分析을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일체는 實際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의 헛된 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變化된 客觀實際에서 출발해야 한다. 客觀實際는 잠시도 멈추어 있는 때가 없이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하며 조건·장소·시간에 따라 바뀌어 진다. 그러므로 實際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은 變化한 實際에서 출발

12) 劉 嶸, 「毛澤東哲學思想概述」(廣東: 人民出版社, 1983), pp. 111~112.

13) 마르크스-레닌의 말이면 모두 一言一句 絕對化하고 神聖視하여 이를 무조건 中國革命의 具體的인 實際를 고려치 않고 적용시키려는 主張으로 教條主義와 같은 의미이다.

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客觀實際 자신이 각 발전 단계마다 그 特殊性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人間의 思想은 반드시 이미 變化한 客觀狀況에 적응해야 하고 客觀狀況(實際)에 낙후되어서는 안된다. 思想이 客觀實際를 초과하거나 혹은 낙후하는 것은 모두 主觀主義라고 보았다. 따라서 毛澤東은 中國의 國情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강조했을뿐 아니라 또한 中國의 오늘과 어제를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路線·方針·政策을 制定할 때, 변화한 客觀實際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셋째, 客觀實際를 全面的으로 分析해야 한다는 것이다. 客觀事物은 모두 對立統一되어 있어 矛盾의 쌍방이 서로 의존하고 연계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므로 客觀實際를 이해하자면 問題를 全面的으로 보아서 矛盾雙方의 特徵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단지 한편만 보고 다른 한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問題를 片面적으로 보는 것이며 片面性은 客觀實際를 정확하게 反映하지 못하므로 이 片面성은 主觀性을 띠게 되는 것이며 主觀主義에 빠지게 된다. 毛澤東은 主觀性·片面性·表面性 및 일체의 主觀과 客觀이 分裂되고, 認識과 實踐이 서로 離脫된 것을 모두 主觀主義라고 불렀다. 따라서 主觀主義와 實事求是는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路線이며, 實事求是를 견지하자면 반드시 主觀主義에 反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2. 客觀事物의 規律을 研究

‘實事求是’는 一切 實際에서 出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求是’ 즉 客觀事物의 規律을 研究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毛澤東의 견해에 의하면, ‘實事求是’는 實際에서 출발해서 상세하게 각종 材料를 장악, 現象을 통해 客觀實際의 內在적이고 本質적인 聯繫을 연구, 그 固有하면서도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客觀規律을 찾아내어 行動의 ‘길잡이’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客觀規律은 자연계의 규

14) 劉 蝶, 1983, 앞의 책, pp. 113~117 참고.

율이든 사회발전의 규율이든 각기 特徵은 있으나 모두 인간의 意志에 의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客觀規律은 創造되거나 廢止되지 않으며 고쳐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단지 그것을 認識하고 利用해서 革命과 建設에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客觀規律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認識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客觀規律에 대한 認識은 훨씬 더 깊이 있고 전면적으로 客觀實際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이래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實際에서 출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黨이나 國家의 路線·方針·政策과 客觀規律사이의 연계와 차이를 분명히 했다. 客觀規律은 인간의 意志로 바뀌지 않는 것이나 路線·方針·政策 등은 實際에 근거해서 制定된 인간의 意志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客觀規律을 認識하고 정확한 路線·方針·政策 등을 制定하면 이 路線·方針·政策들은 群衆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一切의 工作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3. 理論과 實際의 聯繫

毛澤東의 見解에 의하면, ‘實事求是’가 一切는 實際에서 출발해서 客觀事物의 規律을 研究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立場·方法을 운용해서 中國革命과 建設의 客觀實際를 연구해야 하며 이 研究結果로서 行動의 ‘길잡이’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理論과 實際를 연계하는 태도이며 ‘과녁’에 ‘화살’을 명중시키는 태도라고 보았다. 毛澤東은 “‘的’은 바로 中國革命이고 ‘矢’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이다. 우리 中國共產黨員이 이 ‘矢’를 찾고자 하는 까닭은 바로 中國革命과 東方革命이라는 ‘的’을 쏘아 맞히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實事求是의 태도”¹⁵⁾임을 강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客觀事物의 規律性을 認識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調查研究’를 통해서이다.

15) 毛澤東, “改造我們的學習”, 「毛選」, 第3卷, p. 759.

毛澤東은 “마르크스·엥겔스는 평생 노력하여 허다한 調查研究를 했고 비로소 科學的 共產主義를 完成했다. 레닌·스타린도 똑같이 허다한 調查를 했다”¹⁶⁾고 말하고 또 “事物은 운동·변화·진보하는 것”¹⁷⁾이므로 “우리는 때때로 社會狀況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때때로 實際調查를 진행하여야 한다”¹⁸⁾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毛는 調查와 研究를 계속해야만 변화하고 있는 客觀世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實際狀況을 이해하고 그 規律을 認識해서 正確한 思想을 획득하고 工作을 잘 하자면 實踐에 옮겨 群衆을 향해 調查研究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一切의 領導者·實際工作人·宣傳工作人 등은 모두 친히 實際調查에 종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調查가 없으면 發言權이 없다”¹⁹⁾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毛에 의하면, 調查研究만이 實際에서 출발하고 實事求是하며 理論과 實際를 연계할 수 있어 本本主義(敎條主義)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또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인 原理와 中國革命의 具體的인 實踐을 結合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實事求是’思想이 어떻게 해서 形成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實事求是’는 1930 년경부터 시작해서 毛澤東이 소위 “左”右傾機會主義·敎條主義·經驗主義등과의 투쟁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즉 中國革命과정중 中國을 어떻게 인식하고 개조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黨內에는 두 종류의 原則上的 分열이 있었다. 毛澤東이 보기에 일부는 단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性만을 말할뿐 中國의 特殊性은 중시하지 않아 中國의 具體的

16) 毛澤東, “關於農村調查”, 「紅旗」(1979年 1期),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敎研室編, 「毛澤東哲學思想概論」(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83), p. 80에서 재인용.

17) Ibid., p. 79에서 재인용.

18) Ibid.

19) 毛澤東, “《農村調查》의 序言和跋”, 「毛選」, 第3卷, p. 749. 이 글은 본래 《反對本本主義》(1930. 5.)에 있는 말인데 이 문장은 「毛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인 國情에서 벗어났으며, 理論이 實際를 이탈했고, 단지 主觀的인 所望에서 출발하거나 本本과 上級指示에서 출발, 具體的인 實際와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本本主義·敎條主義의 錯誤를 犯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일부는 局部的인 經驗을 보편적인 眞理로 誤認하여 자만하는 經驗主義의 錯誤를 犯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毛는 이러한 ‘錯誤’ 경향과의 투쟁중 (특히 本本主義·敎條主義와의 투쟁중)시중 實踐을 기초로 해서 實際에서 출발하고 調查研究를 착실히 하고 또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인 原理와 中國革命의 具體的인 實踐을 結合하는 基本原則을 堅持했다.²⁰⁾ 이와 똑같은 취지로 毛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共產黨員은 국제주의의 마르크스主義者이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는 반드시 아국의 구체적인 특징과 서로 결합하고 또한 일정한 民族形式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위대한 역량은 바로 그것이 各國家의 구체적인 革命實踐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데에 있다. 中國共產黨에 대해서 말할것 같으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이론을 中國의 具體的인 환경에 응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中國의 특징을 떠나서 마르크스主義를 말하는것은 단지 추상적이고 빈껍데기의 마르크스主義일 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의 중국에서의 具體化, 그 때 표현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국의 特性을 띠게 하는 것, 즉 중국의 特性에 비추어 그것을 응용하는 일은 全黨이 시급히 이해하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었다.”²¹⁾

그러므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인 原理를 中國革命의 具體的인 實踐과 서로 결합해야 하느냐, 또 어떻게 결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中國革命 成敗의 커다란 문제에 관계되어 있다고 毛澤東은 본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毛澤東은 “마르크스主義의 ‘本本’은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實際狀況과 서로 결합해야 한다. 우리는 ‘本本’이 필요하

20) 李 克, 1983, 앞의 책, p. 112.

21) 毛澤東, “中國共產黨在民族戰爭中的地位”, 「毛選」, 第2卷, pp. 499~500.

다. 그러나 반드시 實際狀況에서 이탈한 本本主義는 바로 잡아야 한다”²²⁾ 고 했고, 共產國際(The Third International)가 지휘하는 일체의 指示와 黨內的 敎條主義 경향에 대해, “중국혁명투쟁의 승리는 중국동지가 中國狀況을 이해하는데 달려있다”²³⁾고 강조하면서 上級機關의 指示는 그 집행을 관철하기는 해야 하지만 또한 實際狀況과 結合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共產黨員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말하길 “우리가 마르크스主義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마르크스란 사람이 무슨 ‘先哲’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론이 우리의 實踐과 우리의 鬭爭 중 옳다고 증명되었기 때문”²⁴⁾이라고 했다. 그러나 毛는 마르크스主義가 鬭爭에 필요하다고는 하면서도 그 이론을 단순히 옮기는 ‘本本’의 保守의인 路線에 반대했다. 本本主義者 혹은 敎條主義者는 그들 스스로 자칭 마르크스主義者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調查研究를 反對하거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론과 실제의 統一을 갈라 놓았기 때문에 결코 唯物論者가 아니며 또한 마르크스-레닌主義者도 아니고, 主觀主義者요 唯心論者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들을 고쳐놓는 방법은 實際狀況을 調查研究케 해야 한다고 보았다.²⁵⁾ 이렇게 해서 黨의 ‘實事求是’ 思想路線의 기초를 다져 놓았다.

1936 년과 1937 년, 毛澤東은 《中國革命戰爭的戰略問題》·《實踐論》·《矛盾論》등의 저작을 통해 인식론과 방법론에 있어 “左”右傾機會主義를 비판했다. 즉 “우리의 敎條主義者는 게으름뱅이다. 그들은 구체적인 事物에 대해 어떤 간고한 연구공작도 하길 거절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眞理를 허공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사람이 포착할 수 없는 순수한 추상적인 公式으로 만들어 놓아 인류의 眞理를 認識하는 정상적인 질서를 완전히

22) 毛澤東, 「反對本本主義」(單行本), p. 4,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 68에서 재인용.

23) Ibid.

24) 馬全民等編寫, 「哲學名詞解釋」, 上冊(北京:人民出版社, 1980), p. 413에서 재인용.

25) Ibid.

부인하거나 거꾸로 만들어 놓았다”²⁶⁾고 주장했다.

1941년, 1942년, 毛澤東은 全黨에 整風運動을 일으켰는데 《「農村調查」의 序言和跋》·《改造我們的 學習》·《整頓黨的 作風》·《反對黨八股》등의 저작이 이 整風運動의 주요문헌이다. 毛는 여기에서 반복해서 ‘實事求是’의 思想路線을 강조하면서 全黨黨員은 마르크스主義理論을 教條로 삼지 말 것과, “마르크스-레닌主義 著書에 있는 어떤 개별적인 字句를 이미 만들어 놓은 靈藥으로 보고 마치 그것을 얻기만하면 힘 안들이고 백가지 病을 고칠 수 있다”²⁷⁾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기 자신을 해치며 동지도 해치게 된다”²⁸⁾고 주장했다.

마침내 毛澤東은 1945년 黨의 第7次 全國代表大會의 報告書에서 理論과 實踐을 結合한 ‘實事求是’를 黨의 ‘三大作風’²⁹⁾의 첫번째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毛는 계속해서 이 관점과 作風에 대해 강조했다.

Ⅲ. 마르크스主義 實踐觀

1. 實踐의 主要特徵과 基本形式

實踐이란 무엇인가? 辯證唯物主義에 의하면 實踐이란 인간이 目的을 가지고 客觀世界를 改造하는 物質的인 活動을 가리킨다.³⁰⁾ 마르크스에 의하면, 實踐이란 “人類感性的 活動”, “客觀的인 活動”³¹⁾이며, “社會生活은

26) 毛澤東, “矛盾論”, 「毛選」, 第1卷, p. 285.

27) 毛澤東, “整頓黨的作風”, 「毛選」, 第3卷, p. 778.

28) Ibid., p. 775.

29) 黨의 ‘三大作風’은 1945. 4. 24. 毛澤東이 黨의 ‘七大’에서 행한 ‘論聯合政府’의 政治報告에서 제기한 것으로 實事求是의 作風, 群衆路線의 作風, 自我批評의 作風을 말한다.

30) 八院校函授教材編寫組, 「馬克思主義哲學」(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4), p. 261.

31) 馬克思, “關於費爾巴哈的提綱”, 「馬克思恩格斯選集」(이하 「馬恩選集」으로 약칭), 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1972), p. 16.

32) Ibid., p. 18.

本質上 實踐의이다.”³²⁾ 엥겔스는 不可知論을 논박할 때, 實踐을 實驗과 工業으로 보았다.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그러한 思想을 계승해서 말하길 “生活·實踐의 觀點은 마땅히 認識論의 으뜸가는 基本的 觀點”³³⁾이며, 實踐은 主觀과 客觀의 辨證法的인 統一이고, “實踐·實驗·工業은 이것의 正確性을 가늠하는 척도”³⁴⁾라고 했으며, “行動의 결과는 主觀認識에 대한 검증과 眞實로 存在하는 客觀性에 대한 標準”³⁵⁾이라고 함으로써 實踐의 概念을 훨씬 구체화시켰다.

스타린도 實踐을 중시하고 理論과 實踐의 統一을 견지하고, 理論이 實踐에서 벗어나는 敎條主義에 反對했다. 스타린은 레닌의 思想에 근거해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科學性’은 그의 實踐性에 있고 理論과 實踐의 高度의 統一에 있음을 강조했다. 사실 科學資料는 모두 實踐·經驗에 의해 검증된다. 科學은 偶像을 승인하지 않으며 舊事物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實踐과 經驗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마르크스主義는 不變의 敎條가 아니라 革命行動의 길잡이요 一切 敎條主義의 敵임을 스타린은 강조하고 있다.³⁶⁾

毛澤東은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타린의 實踐에 대한 基本觀點을 계승해서 實踐은 “실행 또는 행동”(做或行動)이고 “주관이 객관에 나타난 것”³⁷⁾(主觀見之於客觀的東西)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즉 實踐이란 이미 획득한 思想認識을 行動에 옮겨, 精神的인 力量을 物質的인 力量으로 轉化시키고, 主觀的인 것을 客觀的인 것으로 變化시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모든 工作은 主觀이 客觀에 나타나는 過程으로써 革命戰爭도 그

33) 列寧, “唯物主義和經驗批判主義”, 「列寧選集」, 第2卷(北京:人民出版社, 1975), p. 142.

34) Ibid., p. 171.

35) 列寧, “黑格爾‘邏輯學’一書摘要”, 「列寧全集」, 第38卷(北京:人民出版社, 1959), p. 235.

36) 唐源昌, “理論與實踐統一, 領導和群衆結合”, 中國社會科學院哲學所馬哲史室·吉林省社會科學院哲學研究所合編, 「斯大林哲學思想討論文集」(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pp. 397~405 참고.

37) 毛澤東, “論持久戰”, 「毛選」, 第2卷, p. 445.

러하고 社會主義革命과 建設도 역시 그런 것이다. 이처럼 “마르크스主義哲學이 십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客觀世界의 規律性을 이해하여 世界를 해석할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客觀規律性에 대한 認識을 가지고 能動的으로 世界를 改造하는데 있다”³⁸⁾고 본 것이다.

그러며 인류 實踐活動의 주요特徵은 무엇인가? 그것은 客觀性·能動性·社會性이라고 보고 있다.

첫째, 實踐의 客觀性: 辨證唯物主義에 의하면, 인간의 物質世界에 대한 改造는 단지 物質의인 力量을 통해 實現되는 것이지 思想자체에 의지해서 實現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實踐의 客觀性이란 實踐의 主體(人)·實踐의 手段(工具)·實踐의 對象(客體) 및 實踐의 過程과 結果에 있다는 말이다.

둘째, 實踐의 能動性: 인류의 實踐活動은 일종의 ‘自覺能動性’을 지닌 활동이다. 인간의 世界改造의 활동은 언제나 計劃과 目的이 있게 마련이다. 인간은 實踐의 能動性을 통해 自然·社會·人間을 부단히 개조하고 새로운 生活領域을 개척해나가 마침내 인류의 物質生活과 精神生活의 水準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實踐의 社會歷史性: 인간은 일정한 社會關係中에 處한 인간이다. 따라서 實踐은 한 사람만의 孤立된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社會性的의 活動이라서 어떤 사람의 實踐이든 모두 一定한 社會關係中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매 개인의 實踐은 모두 群衆活動의 일부분이며 인민군중의 實踐이 없으면 인류사회의 존재와 발전은 없게 되고 따라서 인류사회의 역사도 없게 된다. 實踐의 社會性和 歷史性은 연계되어 있다. 實踐의 歷史性은 實踐活動이 歷史活動의 過程임을 가리킨다. 實踐은 언제나 일정한 歷史段階의 實踐이어서 일정한 歷史條件의 制約도 받지만 또 歷史의 發展에 따라 發展한다. 아무튼 實踐은 社會의 活動이면서 또한 歷史의 活動이다. 만일 社會의 연계와 歷史의 발전을 떠나서 인간의 活動을 고립

38) 毛澤東, “實踐論”, 「毛選」, 第1卷, p. 268.

적이고 정태적으로 考察한다면, 實踐의 意義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³⁹⁾

그러면 實踐에는 어떤 형식이 있는가? 그것은 毛澤東이 말한바와 같이 生産實踐·社會鬭爭(階級鬭爭)實踐·科學實驗實踐의 三種 基本形式이 있다.⁴⁰⁾ 이런 實踐이 바로 調查研究의 범위이기도 하다.

첫째, 生産實踐: 이 實踐은 인류의 自然에 대한 改造活動을 가리키며,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實踐活動이다. 왜냐하면 物質的 生活資料의 生産活動은 全 인류사회가 生存하고 發展하는 基礎이며, 인간이 기타의 일체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物質的인 前提가 되기 때문이다. 生産實踐은 마르크스·엔겔스·레닌·스타린이 계속해서 강조한 하나의 기본사상이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인간이 ‘歷史를 創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生活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生活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衣·食·住 및 기타의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첫번째 가는 歷史活動은 바로 이러한 需要를 만족시키는 資料를 생산하는 것 즉, 物質生活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다”⁴¹⁾라고 했고, 마르크스는 “어떤 한 民族도 만일 勞動을 정지하면 一年은 고사하고 몇주일이면 滅亡할 것”⁴²⁾이라 했으며, 엔겔스도 “과학의 발생과 발전은 처음부터 生産에 의해 결정되었다”⁴³⁾고 말하면서 모두 生産實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레닌은 “오직 社會關係를 生産關係로 歸結시키고 生産關係를 生産力의 수준에 歸結시켜서만이 비로소 믿을만한 根據를 가지고 社會形態의 發展을 自然歷史過程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⁴⁴⁾고 했으며, 스탈린도 “社會發展史는 무엇보다도 먼저 生産의 發展史

39) 八院校函授教材編寫組, 1984, 앞의 책, pp. 262~263.

40) 《“浙江省七個關於幹部參加勞動的好材料”的 批語》(1963. 5. 9.),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 97 참고.

41) 馬克思和恩格斯, “費爾巴哈”, 「馬恩選集」, 第1卷, p. 32.

42) “馬克思致路·庫格曼”(1868. 7. 11.), 「馬恩選集」, 第4卷, p. 523.

43) 恩格斯, “自然辯證法”, 「馬恩選集」, 第3卷, p. 523.

44) 列寧, “什麼是“人民以友”及他們如何攻擊社會民主主義者?”, 「列寧選集」, 第1卷, p. 8.

이며, 수 많은 世紀이래 차례차례 바뀌어 온 生産方式의 發展史이고, 生産力과 인간의 生産關係의 發展史”⁴⁵⁾라고 말했다. 毛澤東도 역시 “人類的 生産活動은 가장 기본적인 實踐活動이며, 기타 一切의 活動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認識發展의 基本的인 來源”⁴⁶⁾임을 강조했다.

둘째, 社會鬭爭實踐: 社會內部에서 인간관계를 처리하는 일종의 社會實踐活動을 가리키는데 生産實踐은 언제나 일정한 社會關係 속에서 진행된다. 인간은 生産發展의 有利한 社會關係를 유지·공고코자하고, 生産發展에 不利하거나 生産을 파괴하는 社會關係는 조정하거나 혹은 變革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活動은 바로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를 처리하는 社會活動이다. 마르크스主義에 의하면, 階級社會中的 인간관계는 가장 基本的인 것이 階級關係이고, 階級矛盾과 階級鬭爭은 階級社會의 政治·經濟·思想·文化등 各 領域에 滲透되어 있어 인간의 思想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階級鬭爭은 階級社會 發展의 直接的인 動力이라고 보고 있다. 毛澤東은 《實踐論》에서 각종 형식의 階級鬭爭이 인간의 認識發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즉 “階級社會에서 모든 사람은 일정한 階級地位에서 生活하며 각종 思想은 階級的인 烙印을 찍지 않은 것이 없다”⁴⁷⁾는 것이다.

셋째, 科學實驗의 實踐: 科學實驗은 生産發展과 社會進步에 적응하기 위해 生成·發展한 것이다. 그것은 신속하게 勞動生産率을 提高시키기 위해 새로운 科學理論과 技術上の 指導를 제공하고 있으며, 날로 인간의 世界認識과 世界改造를 위한 중요한 手段이 되고 있다. 1937년 毛는 科學實驗은 社會實踐의 基本形式의 하나라고 말한 바 있고, 1940년에는 또 “자연과학은 인간이 自由를 쟁취하는 일종의 武裝이다. 인간이 社會的으로 自由를 얻기 위해서는 社會科學을 이용해서 社會를 이해하고 社會를 改造

45) 斯大林, “論辯證唯物主義和歷史唯物主義”, 「斯大林選集」, 下卷(北京: 人民出版社, 1079), p. 443.

46)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 90에서 재인용.

47) 毛澤東, “實踐論”, 「毛選」, 第1卷, p. 260.

하며 社會革命을 진행해야 한다. 인간이 自然界에서 自由를 얻기 위해서는 自然科學을 이용해서 自然을 이해하고 自然을 克服하며 自然을 改造해야 自然으로부터 自由를 얻는다”⁴⁸⁾고 과학실험實踐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認識에 있어 實踐의 地位와 作用

毛澤東은 “변증유물론의 認識論은 實踐을 첫번째 자리에 올려 놓았고, 인간의 認識은 조금도 實踐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實踐의 중요성을否認하여 認識으로 하여금 實踐을 떠나게 하는 일체의 錯誤理論을 배척한다”⁴⁹⁾고 實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毛는 實踐이 認識의 來源이요, 認識發展의 動力이며, 認識檢證의 標準이고, 認識의 目的이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實踐의 認識에 있어서의 地位와 作用을 논술했다.

1) 實踐은 認識의 來源

認識이 인간 두뇌의 客觀世界에 대한 反映이라는 점은 일체 唯物主義 認識論의 基本觀點이다. 그러나 舊唯物主義의 反映論은 認識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즉 인식이 어떻게 客觀世界를 反映하는가 하는 問題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직 변증유물주의의 反映論만이 認識은 인간 두뇌의 客觀世界에 대한 反映임을 승인하고, 또 이 反映은 實踐의 基礎위에서 進行됨을 승인하고 있다. 이 말은 즉 客觀事物(世界)은 자동적으로 인간의 두뇌에 反映해 오는 것이 아니며, 인간은 단지 實踐을 통해서 客觀世界와 이런저런 접촉을 하고, 客觀世界中的의 現象과 事物은 인간의 눈·귀·코·혀·몸 등 感覺器官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의 大腦에 反映되며 다시 大腦의 思維와 加工을 통해 客觀事物에 대한 認識을 形成한다. 아무튼 일체 自然知識과 社會知識은 모두 社會實踐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변증유물주의 認識論에 의하면 社會實踐은 인류인식의 유일한 來源이며 이 외에 다른 來源은

48) 毛澤東, “在邊區自然科學研究會成立大會上的講話”, 「新中華報」(1940. 3. 15.),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 92에서 재인용.

49) 毛澤東, “實踐論”, 앞의 책, p. 267.

없다고 본다. 毛澤東은 말하길 “우리가 認識過程에 있어 社會實踐의 意義를 강조함은 바로 오직 社會實踐만이 인간의 認識을 발생케 하고 客觀外界로부터 感覺經驗을 얻게 하기 시작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간에 어떤 事物을 認識하자면 그 事物과 접촉, 즉 그 事物의 환경속에 生活(實踐)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⁵⁰⁾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확한 思想은 단지 社會實踐中에서 오며, 生産鬭爭・階級鬭爭・科學實踐 3項의 實踐에서 온다.”⁵¹⁾ 이를 떠나면 認識은 “無源之水”요 “無本之木”이며, 주관적인 것이 된다고 보았다.

認識의 來源問題에 있어는, 毛는 또한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毛는 한편 “일체의 참된 지식(眞知)은 모두 직접경험으로부터 發源한다.”⁵²⁾ “인간은 일마다 직접경험할 수는 없다. 사실상 多數의 지식은 간접경험의 것이다.”⁵³⁾ 따라서 “한 사람의 지식은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두 부분에 불과하다”⁵⁴⁾고 지적했고, 진일보해서 “知識의 총체를 두고 말한다면 어떠한 지식이나를 막론하고 직접 경험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직접경험을 부인하고 현실을 변혁하는 실천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유물론자가 아니다”⁵⁵⁾라고 단언했다. 그러므로 毛澤東은 인간이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자면, 社會實踐에 몸소 참가해서 직접경험을 얻어야 하고, 또한 책에 있는 科學的인 知識과 理論을 학습해서 간접경험을 접수, 兩者를 유기적으로 結合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무튼 毛는 實踐이 認識의 來源이라는 마르크스主義認識論의 基本原理를 전면적으로 밝혔다.

2) 實踐은 認識의 動力

50) Ibid., p. 263.

51) 毛澤東, 「人的正確思想是從那裡來的?」(單行本)(北京:人民出版社, 1975), p. 1,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 94에서 재인용.

52) 毛澤東, “實踐論”, 앞의 책 p. 264.

53) Ibid.

54) Ibid., p. 265.

55) Ibid.

毛澤東에 의하면 “인류사회의 生産活動은 일보 일보 저급해서 고급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認識도 自然界方面에 대해서든 社會方面에 대해서든 막론하고 일보 일보 저급에서 고급으로 즉 낮은 데에서 깊은 곳으로, 片面的인 데서 다방면으로 발전한다.”⁵⁶⁾ 이 말은 즉 實踐은 認識發展의 推動力量임을 의미하고 있다. 實踐이 認識發展의 動力이 되는 까닭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實踐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새로운 認識課題를 제공한다. 社會實踐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인간에게 새로운 要求와 새로운 問題를 제기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問題를 認識케 하고 解決하도록 推動시킨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問題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認識이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

둘째, 認識의 깊이는 實踐規模의 증대와 實踐手段의 제고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므로 毛澤東은 實踐中에 부단히 출현하는 새로운 認識道具의 인식발전에 대한 推動作用을 극히 증시하고 있다.

셋째, 實踐의 發生과 發展은 無限하며, 認識의 發生과 發展도 無限하다. 實踐을 통해 인간은 客觀現實을 바꾸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점차 客觀世界에 대한 認識을 획득케 하여 인류의 思維能力을 발전시킨다. 社會實踐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류의 思維能力도 점차 強해진다.

이상의 문제에 대해 毛는 《實踐論》에서 깊이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3) 實踐은 認識을 검증하는 標準

마르크스는 1845년 “인간의 思維가 客觀的인 眞理性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理論的인 문제가 아니라 實踐的인 문제다. 인간은 마땅히 自己思維의 眞理性, 즉 自己思維의 現實性과 力量, 또한 自己思維의 此岸性을 實踐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전을 떠난 사유가 현실적이나 비현실적이나 하는 논쟁은 순전히 스콜라학적인 문제이다”⁵⁷⁾ 라고 명

56) Ibid., p. 260.

57) 馬克思, “關於費爾巴哈的提綱”, 「馬恩選集」, 第1卷, p. 16.

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엥겔스도 哲學上의 여러가지 괴상한 論議에 대한 가장 설득력있는 반박은 “實踐 즉 實驗과 工業”⁵⁸⁾이며 “우리 행동의 결과는 우리의 知覺이 知覺된 事物의 客觀本性和 서로 符合하는 것인가를 증명한다”⁵⁹⁾고 말함으로써 인식의 정확성 여부는 實踐을 통해서만 증명될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레닌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思想을 계승하여 “마르크스는 理論이 現實에 符合하느냐가 理論의 唯一한 標準이라고 생각했다”⁶⁰⁾고 주장하고, “반드시 인간의 實踐 전부를 眞理의 標準으로 삼아야 한다”⁶¹⁾고 했으며 또한 “인간과 인류의 實踐은 認識의 客觀性에 대한 검증이며 잣대”⁶²⁾임을 강조했다.

毛澤東은 마르크스·엥겔스·레닌의 思想을 계승·발전시켰다. 毛는 實踐이 眞理를 검증하는 標準이며 또한 唯一한 標準임을 강조했다. “오직 인간의 社會實踐만이 비로소 인간의 外界認識에 대한 眞理性的 標準”⁶³⁾이며, 이 외에는 다른 진리 검증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진리는 오직 하나이다. 결국 누가 진리를 발견하였는가 하는 것은 主觀的인 誇張에 의해서가 아니라 客觀的인 實踐에 의하여 결정된다”⁶⁴⁾고 實踐의 중요성과 標準性を 강조하고 있다.

毛澤東은 實踐이 왜 진리를 검증하는 標準인가를 천명하고 있다. 즉 認識 혹은 理論이 眞理이나 아니냐는 主觀的으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客觀的으로 社會實踐의 結果에 의해 定해진다. 眞

58) 恩格斯, “路德維希·費爾巴哈和德國古典哲學的終結”, 「馬恩選集」, 第4卷, p. 221.

59) 恩格斯, “社會主義從空想到科學的發展”(英文版導言), 「馬恩選集」, 第3卷, p. 387.

60) 列寧, “什麼是“人民之友”以及他們如何攻擊社會民主主義者?”, 「列寧選集」, 第1卷, p. 30.

61) 列寧, “再論工會·目前局勢及托洛茨基和布哈林的錯誤”, 「列寧選集」, 第4卷, p. 453.

62) 列寧, “黑格爾“邏輯學”一書摘要”, 「列寧全集」, 第38卷, (北京:人民出版社, 1959), p. 227.

63) 毛澤東, “實踐論”, 앞의 책, p. 261.

64)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選」, 第2卷, p. 623.

理의 標準은 단지 社會實踐일 뿐이다”⁶⁵⁾라고 했다. 毛의 견해에 의하면, 認識이 社會實踐中에서 예상했던 結果에 도달하면 이런 認識은 正確하다고 증명된 것이고, 만일 客觀外界의 規律性에 符合하지 않아서 實踐中에 失敗하면 이런 認識은 錯誤로 증명된 것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류 인식의 역사는 우리에게 허다한 이론의 眞理性이 不完全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實踐의 검증을 통해서 그것의 不完全성을 바로 잡는다. 또 허다한 理論이 錯誤인데 實踐의 검증을 통해 그 착오를 바로 잡는다. 소위 實踐이 진리의 표준이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⁶⁶⁾고 재삼 강조했다.

4) 實踐은 認識의 目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哲學을 無產階級이 世界를 認識하는 武器로 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無產階級이 世界를 改造하는 武器로 삼게 했다는 사실이다. 즉 “哲學家들은 단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世界를 해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世界를 變革하는데 있다”⁶⁷⁾고 말한 데서 앞의 뜻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레닌도 역시 “인간의 意識은 단지 客觀世界를 反映할 뿐만 아니라 또한 客觀世界를 創造한다”⁶⁸⁾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간단한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인 전개가 필요했다. 毛澤東은 이 任務를 完成코자 했다. 毛는 “無產階級이 世界를 認識하는 目的은 오직 世界를 改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 또 다른 目的이 없다”⁶⁹⁾고 강조했다. “마르크스主義哲學이 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客觀世界의 規律性을 이해해서 世界를 해석할 수 있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客觀規律性에 대한 認識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世界를 改造하는

65) 毛澤東, “實踐論”, 앞의 책, p. 261.

66) Ibid., p. 269.

67) 馬克思, “關於費爾巴哈的提綱”, 앞의 책, p. 19.

68) 列寧, “黑格爾“邏輯學”一書摘要”, 앞의 책, p. 228.

69) 毛澤東, 「人的正確思想是從那裡來的?」(單行本) p. 2~3, 앞의 책 p. 97에서 재인용.

데 있다”⁷⁰⁾ 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毛는 理論과 實踐의 關係를 갈라놓는 敎條主義者를 비판하면서 다시한번 “마르크스主義理論에 대해서는 그것에 精通하고 應用할줄 알아야 한다. 精通하는 目的은 오로지 應用에 있다”⁷¹⁾고 역설했다. 따라서 毛는 幹部들에게 다시한번 충고하여 마르크스主義理論을 추상적으로 목적없이 研究할 것이 아니라 “中國革命의 理論問題와 策略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타린에게서 立場·觀點·方法을 찾아야 한다”⁷²⁾고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認識(理論)의 目的은 實踐을 指導하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

이상의 논술을 근거로 해서 볼 때 毛澤東은 마르크스主義 認識論의 本質을 파악하고 있으며, 實踐의 觀點을 사용해서 認識의 源泉, 認識檢證의 標準, 認識의 目的 등 제문제를 한데 묶어 놓았고,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認識에 있어서의 實踐의 地位와 作用을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IV. 認識의 辨證法的 過程

認識의 辨證法的 過程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말할지 “思維와 存在는 비록 구별이 있으나 同時에 統一性가운데에 존재해 있다”⁷³⁾고 했고, 엥겔스도 “思維와 存在의 同一性問題는 절대 다수의 哲學家들이 이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⁷⁴⁾고 말했다. 레닌은 “생동하는 直觀에서 抽象의인 思維로, 또 추상적인 思維에서 實踐으로, 이것이 眞理를 認識하고 客觀實在을 認識하는 辨證法的인 길이다”⁷⁵⁾라고 했고, 특히 認識의 反作用을 강조했는데, “觀念의인 것의

70) 毛澤東, “實踐論”, 앞의 책, p. 268.

71) 毛澤東, “整頓黨的作風”, 「毛選」, 第3卷, p. 773.

72) 毛澤東, “改造我們的學習” 앞의 책, p. 757.

73) 「1844年經濟學—哲學的手稿」(單行本), p. 86,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 105에서 재인용.

74) 恩格斯, “路德維希·費爾巴哈和德國古典哲學的終結”, 「馬恩選集」, 第4卷, p. 221.

75) 列寧, “黑格爾‘邏輯學’一書摘要”, 「列寧全集」, 第38卷, p. 181.

實在의 것으로의 轉化, 이 思想은 심각한 것이며 歷史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⁷⁶⁾이라 말한데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레닌은 “革命的 理論이 없으면, 革命的 運動은 있을 수 없다”⁷⁷⁾고 말한데서도 理論과 實踐의 統一性을 알 수 있다. 스탈린은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를 論함》이란 글에서 마르크스主義의 唯物主義 特徵을 3 가지로 요약했는데, 本體論에서는 客觀世界의 物質性을 밝혔고, 認識論에서는 인간의 思維·意識이 物質에서 由來하므로 物質이 第1次的이고 思維·意識은 第2次的인 것이라고 천명했고, 마르크스로 세계는 可知이며 인간은 實踐과 經驗을 통해 끊임 없이 세계 및 그 規律을 認識한다고 말했다.

毛澤東은 《實踐論》에서 上述의 思想을 심화시켰다. 毛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인식은 실천에서 시작하고, 실천을 통해 얻은 이론의 인식은 또 반드시 실천으로 나아간다. 인식의 능동적인 작용은 感性的 認識에서 理性的 認識으로의 飛躍에서 표현될뿐만 아니라 또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理性的 認識에서 革命的 實踐으로의 이 飛躍에서 표현된다.”⁷⁸⁾ 이것은 毛가 행한 認識過程에 관한 두개의 飛躍에 대한 개괄이며, 認識過程의 唯物主義와 辨證法을 전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후에 毛가 진일보해서 “物質은 精神으로 變하고, 精神은 物質로 變할 수 있다”는 두개의 飛躍과 이 둘 사이의 상호연계 및 그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⁷⁹⁾

1. 物質에서 精神으로

무엇을 物質이 精神으로 變한다고 하는가?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社會實踐中 각종 투쟁에 종사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는데 成功하기도 하고 失敗하기도 한다. 무수한 客觀外界의 現象은 인간의 눈·귀·

76) Ibid., p. 117.

77) 列寧, “怎麼辦?”, 「列寧選集」, 第1卷, p. 221.

78) 毛澤東, “實踐論”, 「毛選」, 第1卷, p. 269.

79)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p. 105~106.

코·혀·몸 이 5 가지 官能을 통해 자기의 두 뇌에 反映되어 感性認識이 시작된다. 이러한 感性認識의 材料가 많이 쌓이면 하나의 飛躍이 일어나서 理性認識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思想이다. 이것은 하나의 認識過程이다. 이것은 전 認識過程의 第一段階 즉 客觀物質에서 主觀精神으로의 단계이며 存在에서 思想으로의 단계이다.”⁸⁰⁾

이 설명은 物質이 精神으로의 變化過程은 바로 感性認識이 理性認識으로의 上昇過程을 말해주고 있다. 이 두 認識은 서로 質이 다르면서도 不可分の 關係에 있다. 왜냐하면 理性認識은 感性認識에 의존해 있고, 感性認識은 理性認識으로 發展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은 對立統一關係이며, 社會實踐의 기초위에 統一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感性認識은 認識過程의 起點이며, 理性認識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이다. 그러므로 感性認識이 없으면 理性認識이 없게 된다. 實踐中 획득한 感性認識을 떠나면 理性認識은 無源之水요 無本之木이며 단지 主觀의 으로 自生한 믿을 수 없는 것일 뿐이다. 事物의 現象은 感性認識의 내용이며, 事物의 本質은 理性認識의 내용이다. 인간은 現象을 통해서만 本質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感性認識의 획득은 理性認識에 도달하는 先決條件이 된다.

둘째, 感性認識이 深化·發展해서 理性認識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認識論의 辨證法이다. 認識의 임무는 감각을 통해 思維에 도달하고 現象을 파고 들어가 本質에 이르러 事物의 規律性에 관한 認識, 즉 理性認識을 획득하는 것이다. 감성인식은 단지 현상문제만을 해결하나, 이성인식이 비로소 本質問題를 해결한다. 毛澤東이 말한바와 같이 “感覺된 것을 우리는 즉시 이해할 수가 없다. 오직 이해된 것만이 비로소 훨씬 심각하게 감각된다. 감각은 단지 현상문제를 해결하고 理性이 비로소 本質問題

80) 毛澤東, 「人的正確思想是從那裡來的?」(單行本), p. 1,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 106에서 재인용.

를 해결한다”⁸¹⁾는 것이다.

세계, 感性認識과 理性認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뿐 아니라 상호滲透하고 있어서, 감성인식은 이성인식의 成分을 포함하고 있고, 이성인식도 감성인식의 成分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구분은 상대적이다.

그러면 感性認識은 어떻게 理性認識으로 飛躍하는가?

毛澤東은 이 비약의 조건을 두가지 들고 있다. ① 感覺한 재료가 아주 풍부하며(단편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에 맞는(착각이 아닌)것 이라야만 한다.⁸²⁾ ② “사물의 전체를 반영하고 사물의 본질을 반영하며 사물의 내재적 합법칙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思考作用을 통하여 감각한 풍부한 재료에서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며(去粗取精)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취하며(去僞存眞) 여기로부터 저기로(由此及彼) 길 으로부터 속으로 이르는(由表及裡)改造·製作에 공을 들여 개념 및 이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⁸³⁾는 것이다. 이와같이 개조를 통해서만 객관적이고도 전면적이며 깊이 있게 問題를 볼 수 있으며 事物의 特徵과 本質과 規律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毛가 말한 ‘16字訣’의 改造方法(去粗取精·去僞存眞·由此及彼·由表及裡)은 풍부한 감성인식에서 概念·判斷·推理로 上昇하는 過程이며 곧 理性認識으로 上昇하는 過程이다. 동시에 이 過程은 또한 分析과 綜合, 歸納과 演繹등 논리방면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精神에서 物質로

무엇을 精神이 物質로 變한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즉 認識(理論)에서 實踐으로의 飛躍을 가리키며, 또한 理論으로 實踐을 指導해서 精神的인 힘을 世界를 改造하는 物質의인 힘이 되게 하는것을 말한다. 毛는 第2段階의 飛躍이 認識過程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한바 있다. 즉 두

81) 毛澤東, “實踐論”, 앞의 책, p. 263.

82) Ibid., p. 267.

83) Ibid., p. 268.

번째 비약이 첫번째 비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意義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毛는 “인식의 능동적인 작용은 感性的 認識에서 理性的 認識에 이르는 능동적인 飛躍에서 표현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理性的 認識으로부터 革命的 實踐에 이르는 이 飛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⁸⁴⁾는 견해를 피력했다.

왜 理性認識은 반드시 實踐으로 향해 飛躍해야만 하며 또 이 두번째(제 2 단계)의 飛躍이 더 중요한가? 毛澤東의 견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理性認識은 實踐으로 옮겨져야만 검증과 발전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이성인식이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世界改造의 目的을 實現할 수 있다. 그리고 世界를 認識하는 目的은 世界를 改造하는데 있으며 이 외에 다른 目的은 없다. 그러므로 理論은 반드시 實踐을 指導해야 하며 實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理論的 知識이 중요한 까닭은 實踐을 指導할 수 있고, 사람을 指導하여 自覺의이고도 效果的으로 客觀世界를 改造할 수 있다는데에 있다. 그러면 理論은 어떻게 世界를 改造하는 目的을 實現시킬 수 있나? 마르크스는 일찍이 “사상은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실현시킬 수 없다.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實踐力量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⁸⁵⁾고 했다. 이 말은 즉 오직 과학적인 理論을 사용해서 社會實踐을 指導하고, 과학적인 理論이 實踐中 群衆에게 장악될 때, 비로소 世界를 改造하는 거대한 物質的인 力量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理論을 實踐에 옮기고 實踐을 指導해야만 능동적으로 世界를 改造하는 目的을 이룰 수 있다. 만일 第1段階에서 얻은 理性認識을 높은 다락에 처박아 두고 實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식은 아무리 정확하고 좋다해도 아무 意義가 없게 되고 만다.

이상과 같이 毛는, ‘物質(實踐)에서 精神(認識·理論)’으로 또 ‘精神에서 物質’로는 認識過程에 있는 불가분의 兩次 飛躍이며, 第1次 飛躍은

84) Ibid., p. 269.

85) 馬克思, “神聖家族”, 「馬恩全集」, 第2卷(北京:人民出版社, 1965), p. 152.

世界認識을 해결하는 문제이고, 第2次 飛躍은 世界改造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第1次 飛躍은 第2次 飛躍을 위한 準備와 條件이고, 第2次 飛躍은 第1次 飛躍의 필연적인 발전추세이며 目的이 되는 것이다.

3. 認識運動의 끊임없는 반복과 발전

변증유물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認識은 언제나 일정한 條件下의 認識이다. 즉 主客觀條件의 制限때문에 인간의 認識에는 언제나 굴곡성과 반복성이 출현한다. 엥겔스는 말하길 “우리는 단지 우리時代의 條件下에서만 認識을 진행하며 또한 이러한 條件이 어떤 정도에 달했는가에 따라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認識한다”⁸⁶⁾고 認識의 制約性을 지적하고, 따라서 “인간의 全認識은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曲線을 따라 發展한다”⁸⁷⁾고 했다. 레닌도 認識의 굴곡성과 전진성에 관해서 많은 論述을 했다. 즉 “眞理는 過程”⁸⁸⁾이며, “인간의 認識은 直線이 아니고(즉, 直線을 따라 進行하는 것이 아니고), 無限히 圓에 가깝고 螺旋에 가까운 曲線”⁸⁹⁾이라고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드시 엥겔스와 레닌은 모두 正確한 思想의 형식은 한번에 完成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반복하고 굴곡을 겪는 前進이라고 생각했다.

毛澤東도 이러한 思想을 이어받아 “하나의 正確한 認識은 늘 物質에서 精神, 精神에서 物質, 즉 實踐에서 認識으로, 認識에서 實踐으로의 여러차례의 반복을 통해서만 完成될 수 있다”⁹⁰⁾고 주장했다.

변증유물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認識은 반복성을 지니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無限히 發展하고 永遠히 前進한다고 본다. 인간의 구체적인 認識過程을 보면, 어떤 思想·理論·計劃·方針·方案 등이 여러차례의 반복

86) 恩格斯, “自然辯證法”, 「馬恩選集」, 第3卷, p. 562.

87) Ibid., p. 561.

88) 列寧, “黑格爾“邏輯學”一書摘要”, 「列寧全集」, 第38卷, p. 215.

89) 列寧, “談談辯證法問題”, 앞의 책, p. 411.

90) 「毛主席的五篇哲學著作」(北京:人民出版社, 1970), p. 227,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 121에서 재인용.

을 통해 實踐中 預想했던 結果에 도달하면 곧 完成된다. 그러나 客觀過程의 끊임없는 發展에 대해 말할것 같으면, 인간의 認識運動은 또한 完成되지 않는다. 이는 物質世界 및 그 發展이 無限하기 때문이다. 즉, 時間的으로 볼 때 한 과정에서 또 다른 과정으로의 推移와 轉變이 無限하고, 空間的으로 볼 때 物質構造의 복잡성과 事物·過程間的 연계가 無限하다. 그러므로 物質世界 發展變化의 無限성은 인간의 實踐과 認識도 필연적으로 하나의 無限한 發展過程임을 결정한다.⁹¹⁾

레닌은 이상의 관점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은 쏘 自然界, 그것의 ‘직접적인 전체’를 완전히 파악·반영·묘사할 수 없다. 인간은 抽象·概念·規律·科學的인 世界地圖 등을 창립할 때 단지 영원히 이 점에 접근할 수 있을 따름이다.”⁹²⁾ 또한 “인간의 事物·現象·過程 등에 대한 認識은 現象에서 本質로,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本質에서 훨씬 더 심각한 本質로의 深化의 無限한 過程이다.”⁹³⁾ “인간의 思想은 現象에서 本質로, 소위 初級的 本質에서 2級的 本質로, 이렇게 끊임없이 깊이 파고 들어가나 끝이 없다”⁹⁴⁾고 있다. 여기서 레닌은 인류인식이 하나의 끊임없는 深化와 前進의 無限한 過程임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毛澤東도 엥겔스와 레닌의 위와같은 思想을 계승하여 認識運動의 總規律을 개괄했다. 즉 “實踐, 認識, 再實踐, 再認識, 이런 형식이 무한히 순환·반복되며 매개 순환에서의 실천과 인식의 내용은 모두 이전보다 한급 높은 정도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변증유물론의 전체 認識論이며, 이것이 바로 변증유물론의 知行統一觀이다.”⁹⁵⁾ 이것은 인류認識運動의 辯證法的 過程에 관한 개괄이다.

91) 八院校函授教材編寫組, 「馬克思主義哲學」(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4), p. 278 참고.

92) 列寧, “黑格爾‘邏輯學’一書摘要”, 앞의 책, p. 194.

93) Ibid., p. 239.

94) 列寧, “黑格爾‘哲學史講演錄’一書摘要”, 앞의 책, p. 278.

95) 毛澤東, “實踐論”, 앞의 책, p. 273.

V. 黨의 群衆路線과 마르크스主義認識論

毛澤東은 일찌기 “우리 共產黨員이 기타 어떤 政黨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현저한 표시는 바로 가장 광범한 人民群衆과 가장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⁹⁶⁾이라고 강조했다. 毛는 群衆路線을 黨의 政治路線과 組織路線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認識路線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實踐의 觀點을 認識論에 끌어들인 것에 이어, 毛澤東은 또 群衆의 觀點을 認識論에 끌어들여 群衆路線과 마르크스主義認識路線을 結合시켰다.

1. 群衆路線과 認識論의 統一

毛澤東은 《關於領導方法的 若干問題》(1943.6.)에서 “群衆에서 나와서, 群衆으로 돌아가는”(從群衆中來, 到群衆中去)것이 基本的인 領導方法이며 마르크스主義의 認識論임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바 있다.

마르크스主義에 의하면, 社會發展의 歷史는 무엇보다도 먼저 生産發展의 歷史요, 生産方式의 끊임없는 變更이 歷史이다. 이 觀點에서 출발하던 필연적으로 社會歷史는 物質資料 生産者 자신의 歷史 즉, 勞動群衆의 歷史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타린 모두 人民群衆의 歷史上의 作用을 重視하여 人民群衆은 歷史의 創造者라는 말을 반복했다.

毛澤東은 이들의 思想을 계승하여 人民群衆의 作用을 강조, “人民, 오직 人民만이 世界歷史創造의 動力”⁹⁷⁾이라고 단언했고, 진일보해서 認識論上 人民群衆의 重大한 作用을 논술했다. 그러므로 領導者는 반드시 辨衆路線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96) 毛澤東, “論聯合政府”, 「毛選」, 第3卷, p.995.

97) Ibid., p.932. 本文은 “人民, 只有人民, 才是創造世界歷史的動力”이다.

“우리黨의 일체 實際工作中 精確한 領導에 속하는 것은 모두 반드시 群衆에게서 나와서 群衆에게로 돌아간다이다. 이 말은 즉, 群衆의 意見(分散된 체계가 없는 의견)을 集中시켜서(연구를 통해 집중된 체계적인 의견이 되게 해서) 다시 群衆에게로 가서 선전·해석하여 群衆의 意見이 되게 하고 群衆으로 하여금 堅持하게 해서 行動으로 나타나게 하며 群衆行動中에서 이러한 意見이 正確한가 아닌가를 檢査한다. 그뒤에 다시 群衆에게서 集中해서 다시 群衆속에서 堅持해 나간다. 이와같이 순환을 무한히 거듭해서 차츰 차츰 더욱 精確하고 더욱 生動하며 더욱 풍부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主義의 認識論이다.”⁹⁸⁾

이처럼 毛는 歷史唯物論의 群衆觀點을 辯證唯物論中の 認識論과 緊密하게 統一시켰다.

2. 群衆路線과 認識運動의 規律性

毛澤東이 제기한 “從群衆中來，到群衆中去”의 말은 인간의 認識運動의 規律性을 체현하고 있다 하겠다.

첫째, 群衆路線도 또한 “從實踐中來，到實踐中去”(실전에서 나와서 실천으로 돌아가는)의 過程이다.

마르크스主義의 認識論에 의하면, 認識의 來源은 實踐이고, 實踐을 통해 正確한 認識을 얻는다. 그뒤에 認識은 다시 實踐中에 돌아가 實踐을 指導하고, 實踐을 指導하는 過程中 實踐의 검증을 받으며, 또한 이미 있는 認識을 바로 잡든가 완벽하게 하든가 풍부하게 하든가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從群衆中來”의 過程은 곧 群衆속에 들어가서 實踐에 몸을 맡기고 調查研究하고 經驗을 쌓아 群衆속의 分散된 체계없는 意見을 체계적인 集中된 意見으로 化하게 해서 理論·思想·路線·政策을 形成하는 過程이며, 實踐에서 認識으로의 過程인 것이다. 한편 “到群衆中去”의 過程은 곧 集中된 意見, 制定된 理論·思想·路線·政策 등을 다시 群衆속에

98) 毛澤東, “關於領導方法的若干問題”, 「毛選」, 第3卷, p. 854.

선전·해석하여 群衆의 意見과 行動이 되게 하고 또한 群衆의 實踐속에서 검증하고 보충하고 발전하는 過程, 즉 認識에서 實踐으로의 過程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領導意見에 속하는 것은 모두 늘 “從群衆中來, 到群衆中去” 즉, 實踐에서 認識으로, 認識에서 實踐으로의 여러차례 반복을 통해서만 完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群衆路線은 또한 ‘感性認識에서 理性認識으로, 또 理性認識에서 革命的 實踐으로’의 過程이다.

소위 ‘從群衆中來’는 군중의 의견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분산되고 체계가 없는 의견을 연구를 통해 集中되고 체계적인 의견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즉 生動的이고도 풍부한 感性材料를 ‘去粗取精, 去偽存眞, 由此及彼, 由表及裡’의 改造와 製作의 공을 들여 概念과 理論의 체계를 조성함으로써 感性認識에서 理性認識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集中되고 체계화된 意見을 다시 群衆속에서 선전하고 지도하여 群衆의 意見이 되게 하고 行動(實踐)에 옮기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理性認識에서 革命的 實踐으로 옮겨가는 過程이다. 이처럼 “徐群衆中來, 到群衆中去”의 群衆路線은 認識運動의 兩次飛躍 즉 ‘感性認識에서 理性認識, 理性認識에서 革命實踐’을 충분히 체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群衆路線은 또한 ‘특수에서 일반, 또 일반에서 특수’(從特殊到一般, 又徐一般到特殊)로의 過程이다.

毛澤東은 認識運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류 인식운동의 순서를 본다면 그것은 항상 개별적인, 특수한 사물의 인식으로부터 일반적인 사물의 인식으로 점차 확대된다.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허다한 상이한 사물의 特殊한 本質을 인식한 뒤에야 진실보해서 그것들을 개괄하여 제 사물의 공통적인 本質을 認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공통적인 本質을 認識한 뒤에 이런 공통적인 本質에 대한 인식을 지침으로 하여 아직 研究되지 않았거나 아직 깊이 연구되지 않은 각종 구체적인 事物을 계속 연구하여 그 特殊한 本質을 찾아낸다. 이렇게 함

으로써만이 이런 공통적인 本質에 대한 인식을 補充하고 豊富히 하고 發展시킬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생기없는 죽은 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 이것은 인식의 두 과정이다. 즉 하나는 特殊에서 一般에 이르는 과정이며, 하나는 一般에서 特殊에 이르는 過程이다.”⁹⁹⁾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實際工作中 ‘特殊에서 一般’이란 領導者가 무엇보다 먼저 下級の 個別單位の 個人과 個別事件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經驗을 얻고 여기에서 一般的인 規律를 찾아 정확한 方針·政策·路線을 制定해서 一般的인 意見이 되게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特殊에서 一般’으로의 認識過程이며, 또한 群衆으로부터 나오는 (‘徐群衆中來’)過程이다.

‘一般에서 特殊’란 領導者가 個別指導를 통해 형성한 一般的인 意見을 群衆속에 貫徹시켜 個別指導를 進行하고 이 過程중에 實踐의 검증을 받아 끊임없이 새로운 指示를 내 놓는다. 이것은 認識論의 觀點에서 볼 때, 여러 事物의 공통적인 本質을 認識한 후에 이 공통적인 本質의 認識을 길잡이로 삼아 계속해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혹은 깊이 연구되지 않은 각종 구체적인 事物을 연구, 더욱 特殊한 本質을 찾아내어 이미 존재하는 공통적인 本質에 대한 認識을 補充·豊富히 하고 發展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一般에서 特殊’로의 認識過程이며 ‘到群衆中去’의 過程이다. 이 점은 認識運動의 過程과 群衆路線의 領導方法이 一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와같이 마르크스主義認識論의 發展史에 있어 毛澤東은 최초로 辨證唯物主義의 認識論(反映論)과, 辨證法의 特殊와 一般의 原理 및 歷史唯物主義의 群衆觀點을 유기적으로 結合시켜 ‘實踐—認識—實踐’, 特殊—一般—特殊—, ‘群衆—領導—群衆’의 三者를 統一시켰다. 이러한 점은 認識論을 工作方法과 領導方法을 통해 黨이 領導하는 人民群衆의 社會的인 實踐으로 轉化시켰으며 無產階級政黨과 人民群衆의 世界認識과 世界改造의 武

99) 毛澤東, “矛盾論”, 「毛選」, 第1卷, pp. 284~285.

기가 되게 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이 바로 毛澤東의 마르크스主義認識論에 대한 중요한 貢獻이다.

Ⅵ. 客觀規律과 主觀能動性

마르크스主義에 의하면, 世界의 萬事萬物은 모두 자신의 運動規律이 있고 事物의 運動규율은 客觀的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主觀的인 意志로는 轉化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客觀規律앞에 결코 꿈쩍못하는 존재가 아니고 客觀規律을 認識할 수 있으며 또한 客觀規律에 비추어 世界를 改造할 수 있다. 그러므로 客觀規律을 尊重하고 主觀能動性を 發展시키는 일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1. 客觀規律

마르크스主義에 의하면, 規律(法則)은 一定한 條件下에서 발전하는 事物의 本質的이고 內在的이며 必然的인 聯繫과 趨勢를 가리킨다.¹⁰⁰⁾ 事物의 規律性은 客觀事物 자체속에 固有한 內部矛盾 및 客觀事物이 의존하고 있는 客觀條件에 의해 決定된다. 따라서 自然界이든 社會이든 모두 그 자체의 規律에 따라 發展하고 時間·場所·條件의 變化에 따라 變化한다.

레닌은 規律에 대해 定義를 내린 바 있는데, 즉 “規律은 宇宙運動中の 本質的인 것의 反映”¹⁰¹⁾이고, “規律은 바로 關係이다.……本質的 關係 혹은 本質間的 關係이다”¹⁰²⁾라고 설명했다. 또한 레닌은 客觀規律性を 승인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唯物主義와 唯心主義를 구별했다. 즉 “自然界의 必然性を 승인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思維의 必然性を 끌어 내는 것이 唯物主義이다. 思維에서 必然性·因果性·規律性 등을 끌어 내는 것이 唯心主

100) 馬全民等編寫, 「哲學名詞解釋」, (北京:人民出版社, 1980), p. 154.

101) 列寧, “黑格爾‘邏輯學’一書摘要”, 앞의 책, p. 160.

102) bIid., p. 161.

義이다.”¹⁰³⁾ 스탈린도 《蘇聯社會主義經濟問題》에서 規律의 客觀性을 논술한 바 있다. 즉 社會規律은 社會에서 인간의 意志로는 바뀌지 않는 客觀過程을 反映하는 科學的인 規律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主義는 科學規律—自然科學規律이든 혹은 政治經濟學規律이든 모두 똑같이—을 인간의 意志로는 바뀌지 않는 客觀過程의 反映이라고 이해한다. 인간은 이러한 規律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자기의 행동중 그것을 고려하고 이용해서 社會에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規律을 바꾸거나 폐지할 수 없으며, 특히 새로운 科學的인 規律을 制定하거나 創造할 수 없다.”¹⁰⁴⁾ 그렇지 않으면 規律의 懲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毛澤東은 레닌과 스탈린의 思想을 계승해서, 規律은 바로 客觀事物의 內部聯繫이며 이러한 연계는 객관사물의 내부에 固有한 것으로 인간이 主觀的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다.¹⁰⁵⁾

事物의 本質과 發展의 必然性을 밝히려면 實際에서 출발해서 具體的인 事物을 具體的으로 分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事物發展의 一般的인 規律에 대해서도 研究해야 하지만 특히 事物發展의 特殊規律에 대한 研究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毛는 王明(陳紹禹: 1904~1974)의 教條主義가 中國革命의 特殊規律을 否認하고 기계적으로, 마르크스·엥겔스·레닌이 西歐와 러시아의 狀況에 근거해서 제기한 몇가지 具體的인 理論을 中國에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이 理論을 고칠 수 없는 ‘公式’으로 생각했고, 共產國際의 決議나 蘇聯經驗을 神聖化·教條化하여 中國社會의 實際狀況에 대해 깊이 있는 調查研究를 하지 않았으며, 中國革命에는 그 자체의 特殊性이 있음을 否認했고, 中國革命의 特徵과 特殊한 發展規律을 研究하길 거절했다고 批評했다. 그리하여 毛는 農村革命根據地를 建立하고, 農村이 都市를 包圍하며, 최후에는 武裝으로 政權을 奪取한다는 中國

103) 列寧, “唯物主義和經驗批判主義”, 「列寧選集」, 第2卷, p. 167.

104) 斯大林, “蘇聯社會主義經濟問題”, 「斯大林選集」, 下卷(北京: 人民出版社, 1979), p. 540.

105) 毛澤東, “矛盾論”, 「毛選」, 第1卷, pp. 274~312 참고.

式革命的 ‘客觀規律’을 제시했다.

毛는 또한 規律에 대한 認識에는 하나의 過程이 있음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즉 다음과 같다.

“社會主義建設規律에 대한 認識에는 반드시 하나의 過程이 있다. 반드시 實踐에서 出發해서, 經驗이 없는데서부터 經驗이 있는데로, 비교적 적은 經驗으로부터 비교적 많은 經驗으로, 社會主義建設이라는 이 認識되지 않은 必然王國으로부터 점차 盲目性을 극복하고 客觀規律을 認識하게 되어 마침내 自由를 획득하는데로, 認識에 있어 하나의 飛躍이 출현하면서 自由國에 到達하게 된다”¹⁰⁶⁾는 것이다.

2. 主觀能動性

主觀能動性を 自覺的 能動性이라고도 한다.

主觀能動性이란 主觀의 客觀에 대한 能動的인 作用을 말하며, 인간의 世界認識과 世界改造에 있어서의 目的이 있고 計劃이 있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活動과 努力을 말한다. 따라서 主觀能動性を 自覺的 能動性이라고도 한다. 위에서 이미 말한바와 같이 마르크스主義의 認識論에 의하면, 인류의 主觀能動性は 주로 두 方面에서 表現되고 있다. 하나는 能動的으로 客觀世界를 反映하는 規律이고, 다른 하나는 認識된 客觀規律을 運用해서 能動的으로 客觀世界를 改造하는 일이다. 그러나 主觀能動的으로 客觀世界에 反作用하는 것, 즉 世界改造는 主觀能動性的의 더욱 중요한 方面이다. 이 두 方面은 통일되어 있으며 統一의 기초는 實踐이다. 즉 實踐을 통해서 世界를 認識하고, 實踐을 통해서 世界를 改造한다. 兩者의 統一過程은 바로 主觀能動性(自覺能動性)發揮의 過程이다.¹⁰⁷⁾

마르크스主義는 主觀能動性を 강조하면서 또한 客觀規律性を 尊重한다.

106) 毛澤東, 「在擴大的中央工作會議上的講話」(單行本)(北京:人民出版社, 1978), pp. 18~19. 北京大學哲學系毛澤東哲學思想教研室編, 1983, 앞의 책, p. 136에서 재인용.

107) 熊復等編著, 「毛澤東哲學思想淺釋」(北京:紅旗出版社, 1983), p. 69 참고.

즉 인간이 客觀規律을 장악하면 할수록 더욱 정확하게 主觀能動性を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革命的인 熱情과 科學的인 分析을 結合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타린은 客觀規律性和 主觀能動性的 關係는 보편적인 意義를 지닌 哲學問題라고 보았다. 그는 《蘇聯社會主義經濟問題》에서 먼저 經濟規律의 客觀性を 긍정하고 그것은 인간의 意志에 의해 바뀌지 않는 客觀過程의 反映이라고 했으며, 規律과 法律을 혼동해서 계획은 規律이고 소비에트政權은 規律을 創造·制定·廢止할 수 있다는 ‘唯心主義’觀點을 批評했다. 또 한편, 規律을 偶像化하거나 자신을 規律의 奴隸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社會는 規律앞에서 결코 無能하고 無力한 것이 아니다. 社會가 經濟規律을 認識한 後에 그것에 의지하면 그 發生作用의 범위를 制限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社會에 이롭게 하며, 또 그것을 ‘조종’할 수 있다”¹⁰⁸⁾고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客觀的인 規律(“必然性”)을 認識한 後에 完全히 自覺的으로 이러한 規律을 운용해서 社會에 이롭게 할 수 있다”¹⁰⁹⁾는 것이다. 스탈린은 계속해서 客觀的인 規律性を 승인하지 않고, 이러한 規律을 研究하지 않으면 科學을 否認하고 取消하는 것이 되며, 科學을 取消하면 어떤 預見의 可能性도 否認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탈린은 規律을 偶像化하거나 規律의 奴隸가 되는 것에 반대했고 또 客觀規律을 생각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며 冒險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스탈린은 오직 客觀規律을 正確히 認識하는 基礎위에서 인간의 主觀能動性は 비로소 충분히 發揮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스탈린이 客觀規律性和 主觀能動性的 作用을 同等하게 다룬것이 결코 아님을 뜻한다. 그가 보기에 社會主義建設에는 두말할 필요없이 인민의 主觀能動性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 요구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客觀規律性を 尊重하는 것을 前提로 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는 客觀規律에 따라 일해야 한다는 理論을 전제하고, 진정으로 客觀規律에 따라 일하자면 반드시 革命的인 膽略

108) 스탈린, “蘇聯社會主義經濟問題”, 앞의 책, p. 542.

109) Ibid.

과 實際의인 精神을 結合시키는 原則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¹⁰⁾

毛澤東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思想을 계승해서 《實踐論》·《矛盾論》 및 기타 哲學著作에서 主觀能動性(自覺能動性)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다.

毛澤東은 主觀能動性의 內容과 特徵에 대해 논술했다. 즉 “一切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사람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思想·道理·意見을 도출하고, 計劃·方針·政策·戰略·戰術을 제기해야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思想등등은 主觀的인 것이며 실행 혹은 행동은 主觀이 客觀에 나타난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인류의 特殊한 能動性이다. 이 能動性을 우리는 ‘自覺의 能動性’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모든 사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다.”¹¹¹⁾ 여기서 毛는 主觀能動性을 自覺能動性이라고 표현했고 自覺能動性의 內容과 特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自覺의 能動性은 오직 인류에게만 있다. 事物은 意識의 活動을 할 수가 없다. 事物은 思想이 없으므로 客觀世界를 改造하는 實踐活動이 있을 수 없다.

둘째, 自覺의 能動性은 舊唯物論者가 주장하는 消極的·被動的인 反映論에 反論에 反對하여 한 말이다.

세째, 自覺의 能動性은 客觀에 대한 認識과 改造의 目的과 計劃이 있는 活動이다. 즉 自覺能動性은 認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욱 主要한 것은 實踐을 포함하여 主觀的인 청사진을 客觀的 現實로 轉化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自覺能動性의 作用과 그 實現의 條件은 무엇인가?

毛澤東의 견해에 의하면 可能性은 결코 現實性和 같지 않다. 客觀因素가 可能性을 具備한 條件下에서 이 可能性을 現實性이 되게 하자면 이때 自覺能動性은 主要한 決定的인 作用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반드시 事物의 客觀規律과 客觀的인 物質條件을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 自覺能動性을 발

110) 劉 嶠·陳長暢, “斯大林論按客觀規律辦事”, 中國社會科學院哲學所馬哲史室·吉林省社會科學院哲學研究所合編, 「斯大林哲學思想討論文集」(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pp. 358~360 참고.

111) 毛澤東, “論持久戰”, 「毛選」, 第2卷, p. 445.

위하는 基礎이다. 예를 들어서 毛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쟁의 勝負가 주로 작전쌍방의 軍事·政治·經濟·自然등 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작전쌍방의 주관적인 지도 능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軍事家は 物質的 條件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戰爭의 勝利를 시도할 수는 없으나 物質的 條件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또한 쟁취해야 한다. 軍事家の 활동무대는 객관적인 物質的 條件위에 설치되어 있지만 軍事家は 이舞臺에서 다채롭고도 威武가 雄壯한 수많은 劇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¹¹²⁾ 이 말은 즉 오직 客觀規律을 장악하고 物質條件을 認識하는 基礎위에서만 自覺能動性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客觀規律과 主觀能動性은 어떤 관계인가? 毛에 의하면 이것은 辨證法的인 關係이다. 즉 오직 主觀能動性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객관규율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오직 客觀規律을 尊重해야만 主觀能動性으로 하여금 正確한 發揮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毛는 客觀規律과 主觀能動性을 結合해야 한다고 했다.¹¹³⁾ 인간이 主動的(能動的)으로 客觀事物에 접촉하지 않고 改造하지도 않으며 머리를 써서 事物의 現象도 分析하지 않고 事物의 각종 현상에 대해 綜合하지도 않으면 客觀事物의 規律을 장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어떤 客觀規律을 장악했을 때 主觀能動性은 正確하고 效果가 훌륭한 發揮를 할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毛는 말하길 “일체 客觀事實에 根據하고 符合하는 思想은 正確한 思想이며, 일체 正確한 思想에 範據한 실행 혹은 行動은 正確한 行動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思想과 行動을 發揚하고, 반드시 이러한 自覺的 能動性을 發揚해야만 한다.”¹¹⁴⁾고 했다.

毛澤東은 또 主觀能動性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實際를 벗

112) 毛澤東, “中國革命戰爭의戰略問題”, 「毛選」, 第1卷, p. 166.

113) 熊復等編著, 1983, 앞의 책, p. 71 참고.

114) 毛澤東, “論持久戰”, 「毛選」, 第2卷, p. 445.

어난 主觀主義이고 다른 하나는 客觀規律에 符合하고 實際에 符合하는 主觀能動性이다. 그러므로 主觀能動性的 發揮은 반드시 客觀規律의 尊重과 잘 結合해야 한다고 보았다.

毛澤東은 事物發展의 客觀規律과 인간의 主觀能動性간의 相互關作를 말할 때 하나의 중요한 思想이 있는데, 主觀的이고 精神的인 것이 一定한 條件下에서는 決定的인 作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⁵⁾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오직 主觀的인 因素가 客觀規律에 符合해야만 主觀的인 作用이 客觀過程의 발전에 決定的인 作用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哲學에 의하면, 主觀能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客觀規律이 決定的인 作用을 한다는 前提下의 일종의 反作用일 뿐이다. 主觀能動性은 客觀規律을 超越할 수 없고, 더욱 客觀規律을 創立·消滅·改造할 수도 없는 것이며, 客觀規律의 決定的인 作用을 고려치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모두 規律의 懲罰을 받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辨證唯物主義가 심분 인간의 主觀能動作用을 강조한다 해도 그것과 客觀規律의 尊重을 서로 비교한다면 결국은 第2次的인 것에 불과하다. 스탈린도 毛澤東도 이 思想을 승인하고 있다.

VII. 結 論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변증유물주의 認識論의 創始人으로서 認識論을 世界認識과 世界改造의 道具로 삼았다. 즉, 그들은 최초로 實踐을 認識論에 적용하여 實踐이 마르크스主義認識論의 基礎임을 주장했고, 또한 辨證法 운동·변화·발전의 법칙)을 認識論에 적용했으며, 認識의 目的은 世界를 해석하는데 있을뿐만 아니라 世界를 改造하는데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들이 제기한 認識論의 基本觀點은 비록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구체적 설명은 없아해도 辨證唯物主義의 認識論을 위한 理論的 基礎를

115) Ibid., pp. 444~445.

다져 놓았다.

레닌이 처한 時代는 認識論이 唯物主義와 唯心主義 鬭爭의 焦點이었다. 唯心主義의 挑戰에 직면하여 레닌의 注意力은 마르크스主義認識論을 방어하고 발전시키는 唯物論의 基礎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實踐은 認識의 基礎라든가 또는 認識의 辯證법적인 過程등의 理論을 미처 충분히 체계적으로 展開하지 못했다.

스타린은 實際에서 출발해서 客觀規律을 認識하는 客觀事物에 대한 可知性을 천명하고, 實踐을 重視하고 理論과 實踐(實際)의 統一을 重視했으며, 客觀規律에 비추어 일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主義認識論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 그러나 毛澤東은 진일보해서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마르크스主義認識論을 발전시켰다. 중요한 內容만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實踐을 基礎로 해서 實際에서 出發하고 實事求是해야 한다는 認識論을 黨의 思想路線으로 삼았다. 毛가 보기에 一切 客觀적으로 存在하는 事物, 一切 人間활동의 實踐經驗은 認識의 對象이요 認識의 出發點이고, 오직 人間の 두뇌만이 認識의 主體이다. 그리고 認識의 目的은 周圍에 존재하는 客觀事物에서 그 固有한, 억지로 지어낸 것이 아닌 規律性을 찾아내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實際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實事求是하는 것이다.

둘째, 實際에서 출발하고, 實事求是하자면 반드시 客觀狀況에 대한 調查研究에 注意해야 한다. 調本研究의 過程은 바로 客觀事物을 認識하는 過程이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過程이다. 그러므로 毛는 實踐第一의 觀點을 강조하고 先驗論(主觀主義·敎條主義)에 반대했다.

셋째, 理論과 實踐의 統一을 주장하여 主觀과 客觀의 分裂, 理論(認識)과 實踐의 離脫등의 唯心論과 機械唯物論을 비판했다. 따라서 全面的으로 主觀과 客觀, 理論과 實踐, 知와 行의 具體적이고도 歷史적인 統一에 대해 체계적인 논술을 전개하고, 認識의 辯證法的인 過程과 眞理(相對的 眞理와 絕對的 眞理)를 認識하는 過程을 천명했으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인 原理와 中國革命의 具體的인 實踐을 서로 결합해야만 하는 問題를 論證했다.

네째, 더욱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主義認識論과 歷史唯物主義를 結合해서 “從群衆中來, 到群衆中去”의 群衆路線을 制定, 群衆이 實踐과 認識의 ‘主體’임을 밝혔으며, 이를 實際工作中에서 體現하고 있다.

다섯째, 客觀規律을 尊重하는 基礎위에서의 世界改造에 대한 主觀能動性(自覺能動性)의 重要性을 강조했다.

여섯째, 《인간의 정확한 사상은 어디에서 오는가》(人的 正確思想是從那裡來的?)에서 또 새로운 實踐經驗에 근거하여 깊이있게 物質이 精神이 되고 精神이 物質이 되는(‘物質變精神, 精神變物質’) 認識의 辨證法을 천명했다.

일곱째, 黨員과 幹部들에게 마르크스主義認識論에 대한 教育의 重要性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이 毛澤東은 實踐의 基礎로 하는 마르크스主義認識論을 풍부하게 發展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毛澤東의 認識論을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타린과의 연계속에서 살펴 보았다.